

총장-뉴스레터 - 65 (2023-9-29)

출 8 장 20 절-9 장 12 절 (파리-악질-독종 재앙)

“바로가 비와 우박과 우렛소리가 그친 것을 보고 다시 범죄하여 마음을 완악하게 하니
그와 그의 신하가 꼭 같더라” (출애굽기 9:34)

하나님은 애굽 한 가운데에 거하는 자기 백성을 애굽의 다른 모든 지역에 닥치는 재앙으로부터 보존할 권능이 자기에게 있음을 바로가 깨닫게 하시는데, 이것이 파리 재앙에서 새로운 점이다. 본문에서 ‘팔라’는 완료형으로 사용되어 하나님께서 애굽백성들로부터 이스라엘 민족을 꼭 구별하시겠다는 강한 의지를 보여 준다. 하나님의 이러한 분리는 애굽인들에게는 자신들에게 임한 재앙이 자연 현상이 아니고 이스라엘 자손들이 믿는 여호와란 신으로부터 내린 것임을 깨닫게 하는 증거가 되었다.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자신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 것인가를 알게 하는 중요한 표시가 되었다.

파리 재앙 (Flies plague)

본문에서 말하는 파리가 어떤 곤충을 가리키는지는 불확실하다. 7:20 에서 물이 피로 변했고, 8:3 에서 개구리가 생겼고, 8:17 에서 티끌이 이가 되었다. 이처럼 앞선 3 지 재앙에서는 그 재앙을 표현하는 동사들이 모두 재귀형이나 능동형이 사용되어 하나님의 개입에 대해 소극적으로 표현한 반면 본문의 ‘보내리니’ 에 해당하는 ‘찰라흐’ 는 사역형 분사 능동형으로 사용되었다. 이는 파리떼가 자연 발생적으로 생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개입에 의해 생겨난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사역형을 쓴 것이다. 이와 더불어 첫째 재앙부터 셋째 재앙까지는 모두 물과 땅에서 이루어진 재앙이었다. 그러나 네째 재앙인 ‘파리 떼’ 재앙은 공중에서 이루어지는 재앙이었다. 이는 횡수를 더해 갈수록 재앙의 범위가 커져 가고 있음을 보여 준다. 다시 말해 마음이 강락해져 불순종을 거듭하는 바로와 애굽을 향한 하나님의 진노가 점점 더해져 감을 깨닫게 해준다.

악질 재앙 (Livestock pestilence plague)

앞의 여러 재앙이 생활에 불편을 주는 재앙이었다면 가축이 죽는 재앙과 더불어 생명을 위협하는 재앙이 시작된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피해를 입지 않았음이 다시 한 번 똑똑히 드러난다. 말과 나귀와 약대에게 재앙이 나타났다. 당시의 말은 주로 군사용으로 사용되었으나 농업용으로도 일부 사용되기도 하였다. 나귀는 짐을 지거나 이동시, 그리고 밭을 갈 때 많이 이용되었다. 그런 까닭에 고대 애굽 사회에서는 가장 중요하게 여겨지는 짐승 가운데 하나였다. 따라서 이 ‘나귀’ 는 각 가정의 여러 재산 가운데 가장 귀한 품목으로 인정되었다. 약대의 용도는 타는데, 짐을 나르는데, 또한 젖을 짜 데 있었다. 이 약대는 낙타로 불리기도 하며 특히 장거리 수송용으로 많이 쓰였는데 그 중에서도 사막을 가로질러 무역하는 대상들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한 짐승이었다.

악질 재앙의 정도가 얼마나 심했는지 애굽의 모든 생축이 다 죽을 정도였다. 지금까지의 재앙이 단순히 사람 또는 짐승을 일시적으로 괴롭히는데 그쳤다면 이 다섯 번째 재앙은 그야말로 모든 생축들의 생명과 직결된 재앙으로서 그 재앙의 정도가 지금까지의 그 어떤 것들보다 훨씬 더 치명적이었음을 알 수 있다.

독종 재앙 (Boils plague)

독종은 '종양과 수포들'이다. 여기서 '종양'에 해당하는 '쉐힌'은 '태우다'란 뜻에서 유래하여 '불에 덴 흔적', '종기', '부스럼' 등을 뜻한다. 그리고 '수포'에 해당하는 '아바뿌아'는 '부풀다'라는 뜻을 가진 아람어에서 유래하여 피부에 염증을 일으키는 농포를 뜻한다. 따라서 독종은 히브리 원어의 뜻을 통해서도 알 수 있듯이 재가 온 애굽을 날아 애굽인들의 피부에 닿았을 때 그것이 닿은 자리가 마치 불에 덴 것처럼 붉게 부풀어 오르고 물집이 생기며 고열과 함께 심한 가려움 증세가 유발되어 마침내 물집이 터져 고름이 줄줄 흐르는 악성 피부병을 뜻한다. 이는 마치 문둥병과 같은 발진성 피부병이거나 통증과 열을 동반하는 상피병과 같은 전염성이 강한 무서운 질병이었다. 성경에서 이것과 유사한 질병을 앓았던 사람으로 옴을 찾아볼 수 있는데 의학이 발달하지 못했던 당시의 사람들에게 이 질병은 공포의 대상으로 여겨지던 더러운 질병이었다.

생각하기

술객들과의 대결이 마지막 국면으로 접어들자 술객들은 더 이상 도전에 응할 수 없었다. 그러나 이로써 바로에 대한 하나님의 행위가 끝난 것은 아직 아니다. 한편 '여호와께서... 강압케하셨으므로'라는 구절에 대해 혹자는 잘못 이해하여 하나님께서 인간의 자유의지를 부정하여 인간의 심령 속에 강압적으로 개입하신 것으로 해석하기도 한다. 그러나 선하신 하나님께서는 절대 주권을 가지셨음에도 결코 어느 누구의 마음에 개입하셔서 그의 마음을 강압하게 만들지 않으신다. 오히려 심령이 완악한 사람들이 그들의 죄악된 길에서 돌이켜 회개하여 선을 행하기를 원하신다. 단지 하나님께서는 패역한 인간들이 자신에게 주어진 자유의지를 남용하고 악용하여 하나님께 대항하고 자기들의 마음을 스스로 강압케 하는 것을 막지 않으셨을 뿐이다(롬 1:28).